

완도, 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본격화

생산연구단과 업무협약...외해 양식 테스트베드 구축 청산면 해역서 시험양식...블루카본 인증·기술 첨단화

완도군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해조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시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미국 에너지부(ARPA-E)가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은 해조류 외해 대량 양식과 블루카본·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실증해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기반을 마련하고, 양식 기술의 첨단화·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성균관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총괄하며, 국내외 29개 기관, 12개 대학, 5개 연구소, 12개 기업 등 30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한다.

연구단은 수심 35m 이상의 외해를 대상으로 수온, 영양염 등을 분석한 결과, 어업 활동 보호구역과 환경·항만·군사 구역 등 제외 후 해조류 외해 대량 시험 양식지를 완도군 청산면 남동 측 해역으로 정했다.

군은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넓은 외해 면적과 안정적인 해황, 풍부한 양식 기술 등을 갖춰 최적의 사업 대상지로 평가받았다.

이에 군은 최근 서울스퀘어에서 사업 용역을 맡은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연구단(단장 윤환수 성균관대 교수)과 해조류 외해 양식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기술 협력·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외해 양식 구조물 설계·구축 등 시험 사업 운영에 착수하고, 안정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을 단계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한계에 직면한



완도군은 최근 서울스퀘어에서 사업 용역을 맡은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연구단과 해조류 외해 양식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기술 협력·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조류 양식이 연근해를 넘어 외해에서도 가능함을 검증하고, 1차 산업에서 나아가 해조류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은

‘탄소 크레딧’ 사업과 ‘완도형 바다 연금’의 기초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연구단과 해조류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탄소 흡수량 산정 체계 구축, 블루카본 인증 기반 마련 등도 추진하

기로 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군이 국제 사업의 거점으로 참여하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해조류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 바이오 소재는 물론

화장품 원료, 블루카본으로까지 해조류산업의 활용 범위를 넓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생활민원 처리 시스템 ‘일사천리 순천’ 일상 속 자리매김

시,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실시간 상황 공유

카카오톡 기반 생활민원처리 시스템 ‘일사천리 순천’이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순천시의 대표적인 비대면 온라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일사천리 순천’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즉시 접수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스마트 민원 서비스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로 연결돼 처리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 공원 및 체육시

설 보수, 도로·교통 불편, 각종 민원 신고 등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에 강점을 보이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가 주를 이뤄 평균 처리 기간이 7일 내외로 소요되고,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일사천리 순천’ 운영 이후에는 단순 민원은 당일 처리, 복합 민원은 5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 평균 처리 기간을 3일 수준으로 단축하며 민원 처리 효



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37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민원 1044건을 처리해 생활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카오톡으로 바로

민원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려 한다”,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올해 단순 민원 처리 기능을 넘어 시정 주요 정책, 제도 안내, 각종 행사 정보 제공 등으로 ‘일사천리 순천’의 활용 범위를 넓혀 시민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방식으로 행정 접근성을 높인 것이 ‘일사천리 순천’의 가장 큰 성과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간과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나주, 소통행정 ‘주민과의 대화’ 반환점

빛가람동서 미래 비전 공유 정주여건·인프라 확충 공감대

‘2026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리며 나주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6 주민과의 대화’를 남평읍에서 처음 시작해 최근 빛가람동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며 전체 일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금천농협 빛가람지점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주요 공직자와 도·시·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여가·문화 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첨단 과학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빛가람동의 역할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병태 시장은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는 으뜸나주’를 목표로 한 6대 추진



나주시는 최근 금천농협 빛가람지점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전략 가운데 ‘균형발전 선도 모델’로서 빛가람 혁신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빛가람복합문화센터와 빛가람꿈자람센터 개소,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 공원과 어린이 실내의 놀이터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병태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건의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책무다”며 “말로만 하는 소문도 아닌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바로 움직이는 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납은 주민과의 대화 일정에서도 작은 불편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 스마트 양식 시스템 운영 실태 등 확인

고흥군이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군은 최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전남도와 금산면 금장마을 순환어과식육상 양식장을 방문하고, 10개 조성 사

업 중 스마트 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사업(270억원)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 운영 실태와 기술 적용 가능성, 친환경 양식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

견을 교환했다. 진행된 관계기관 간 회의에서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향후 단계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군은 이번 현장 방문과 협의를 계기로 중앙부처, 연구기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수산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은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흥군이 남해안 스마트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살기 좋은 구례, 예산 4000억 시대 열었다

전년비 17.7% 증가...민생회복 집중

구례군이 처음으로 예산 4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은 지난해 3463억원보다 17.7% (613억원) 증가한 4076억원(일반회계 4021억원, 특별회계 55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증가 배경은 재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세는 2025년 161억5800만원에서 올해 161억8600만원으로 2800만원(0.17%), 세외수입은 99억3800만원에서 102억600만원으로 2억6800만원(2.7%)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1660억원에서 1952억3000만원으로 292억3000만원(17.6%), 보조금(국고균특기금·도비)이 1395억4900만원에서 1583억3300만원으로 187억8400만원(13.5%)이나 증가했다.

또 조정교부금이 45억원에서 90억원으로 45억원(100%)이 늘어나고보전수입 등이 46억600만원에서 131억

원으로 84억9400만원(184%)이나 증가했다.

이밖에도 특별회계가 55억400만원에서 55억1300만원으로 1000만원(0.18%) 늘어났다.

역대 군 예산을 보면 지난 2022년 3300억원, 2023년 3454억원, 2024년 3479억원, 2025년 3463억원대 등에 머물렀지만 올해 4076억원으로 6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군은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으로 사회복지분야 898억원(21.4%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729억원(54.4% 증가), 환경분야 524억원(19.6% 증가), 문화·관광 387억원(7.4% 증가), 국토·지역개발 분야 185억원(10.3% 감소)을 편성·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예산 4000억원 은 역대 최대 규모다”며 “민생회복과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집행한다”고 말했다.

구례=김규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촉촉한 ‘목포돌봄365’ 시범운영 첫걸음

시, 통합지원회의 개최...대상자·서비스 지원 논의

목포시는 최근 ‘제1차 목포돌봄365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목포시 통합돌봄전담팀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련 사업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행정동 주민센터를 통해 발굴 대상자 2명에 대해 각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방안과 지원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총 13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연계가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사업은 유관 기관과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첫 통합지원회의를 계기로 목포형 통합돌봄사업의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상자들이 촉촉하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목포형 통합돌봄 모델인 ‘목포돌봄365’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 제정, 정기적인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본인 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